어색할 만큼 호사로운 섬김 받기

(민17:1~1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4.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색할 만큼 호사로운 섬김 받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어색할 만큼 호사로운 섬김 받기'

밴쿠버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이민을 와서 좋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비용 문제로 인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좀 무리를 해서 어린 자녀 둘을 동반해서 네 식구가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그랬고 배 안에서도 방에 따라서 다양한 레벨이 있고 비용도 2천불인지 3천불인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녀 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에게 '뭐가 제일 좋았냐?'고 했더니 '방해받지 않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인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뷔페식당에서 산해진미로 쌓인 음식들을 고르고 있으려니 유니

폼을 입은 잘 생긴 백인 승무원이 와서 '음식을 다 보셨으면 이제 자리에 가서 앉으시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제 앉아계시면 그 메뉴대로 원하시는 만큼 몇 번이고 가져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쑥스럽고 어색하고 겸연쩍은 마음에 '내가 그냥 접시에 담아 먹겠다.'라고 했더니만 그 배우처럼 잘생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이 배 안에서만이라도 여왕이 되십시오. 제가 여왕이 되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참 인상 깊은 말입니다.
사실 여왕 같은 사치스러움과 호화로움에 몸과 마음이 이미 절어버린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고, 그 사람의 환경이 그런 여왕 같은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기에도 흉하고 측은하게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사로움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아서 무척 어색하고 수줍기까지 한 동양의 여인을 멋진 백인 승무원이 여왕처럼 섬기는 장면은 나름대로 인생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을 만큼 멋지고, 제3자 입장에서 그 장면을 떠올려도 기분 좋은 웃음이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20: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시는데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크루즈의 잘 생긴 백인 승무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섬김을 아무런 수줍음과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정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목숨을 바쳐서 섬기신다고 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중하게 사양이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내가 섬김을 받으면 그 받은 섬김이 기반이 됩니다. '섬겨서 여왕이 되게 한다.'는 것은 '여왕처럼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섬기시는데 '내가 그 섬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기반이고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섬김의 토대위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쑥스럽고 몹시 겸연쩍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의 토대가 되면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토대위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라면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될 삶의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섬김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인 승무원의 섬김 때문에 음식을 내가 스스로 가져다 먹어야 되는 과정이 빠지고, 마치 여왕을 섬기듯이 하는 승무원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섬김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자력갱생의 부분입니다. 내 스스로 삶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일과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만

하는 자력갱생의 부분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나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장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장갑'은 장갑이 접촉하는 일을 장갑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살기가 힘이 들고, 내가 애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이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백인 승무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는데도 똑같은 음식을 내가 다시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력갱생의 삶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더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언뜻 보면 앞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확립시키신 사건이라고 보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 주 초점이 아론의 제사장직 권위 확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서의 성막 중심의 생활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민들의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택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명확하게 성격규정 짓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의 초점은 제사장으로서 선택된 아론의 지위를 확립해 놓기 위한 것보다는, 제사장으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지위에 대한 성격규정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피상적으로 보자면 섭섭한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법궤 앞에 두었던 각 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내 이름의 지팡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고, 아론은 뭘 어떻게 했기에 선택받았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궤 앞에 둔 내 이름의 지팡이가 선택받지 못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근원적으로 선택 받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신 것도 선택함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도 선택함 안에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다른 지팡이들도 근원적인 선택함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근원적인 선택'의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앞서 본 15:41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갖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근원적 선택의 이유입니다. 이 지구위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

하게 기쁨의 이유로 만족함의 이유로 행복함의 근거로 돈, 사업의 성공, 승진, 자녀의 형통, 건강, 취미생활, 명품 차, 명품 집, 명품 백 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 선민인 것입니다. 내가 기쁨의 이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선택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승진을 기쁨의 이유로 삼으려고 선택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 선민이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이전에 다른 것에 손을 대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의 목회조차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목회를 부흥해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결코 원하는 만큼 보람찬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갖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장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셔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곁들이는 소제와 전제가 다 하나님을 갖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택하시고 휘황찬란한 화려한 예복을 입히십니다.
결국 이 화려한 예복을 입히신 것은 크루즈 승무원의 유니폼과 다를 게 없고,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신 이유는 근원적으로 선택하신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크루즈 안에서 여왕이 되도록 잘생긴 백인 승무원을 뽑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의 섬김과 봉사와 직무수행을 통해서 관장되고 있는 성막과 제사를 내 삶의 기반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재벌들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토대로 삼아서 출발하면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이 아론의 섬김을 통해 관장되는 성막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갖게 되는 일을 토대로 삼아 삶을 출발하도록 한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성막의 기구와 제사의 의미가 더욱 더 온전하게 완성되고 성취되었으므로 십자가 사건이 내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재벌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출발하듯이, 내가 창조주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모시는 토대 위에서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재벌 아들들의 삶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조물주의 자녀라는 토대 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믿음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고라 일당의 어리석음입니다.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선택을 통하여 제공되는 내 삶의 기반과 내 삶의 출발점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불쌍한 것은 아론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성막에 묶여서 제사 일을 관장하면서 살아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업도 주어지지 않고, 나머지 11지파의 삶의 기반과 출발점을 공고히 쌓기 위한 것으로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에게 반란을 제기했듯이 예수님에게 반란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반란을 제기하게 되는데,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은 내 삶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 주어진 삶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아버지가 계십니다. 땅에는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세상이 정한 많은 가치들이 있고, 그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가셔서 알렉산더처럼 땅을 정복하신 것도 아니고, 당나라 현종처럼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버리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방향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죄함의 사건으로 믿으면서 '나는 죄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일단 마무리 짓고 나서 이 세상으로 마음이 빠져들어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토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토대가 되는데 이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늘나라는 먼 훗날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이어지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출발점이고 삶의 토대이고 삶의 기반인 것입니다.
아론에게 반란을 제기한 고라의 영성은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입으로는 예수님에게 반란을 제기하진 않아도 마음의 관심과 방향이 세상 쪽으로 흘러나가며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라는 토대(기초)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자녀들은 재벌 아버지의 재산으로부터 출발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천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기반이고 토대인 것입니다. 이 토대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토대로 삼으라.'고 하니 쑥스럽고 어색합니까? 호사스럽다, 호사스럽다 더 이상 호사스러울 수 없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천국과 아버지 되심을 내 삶의 토대로 삼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충분히 만끽하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대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몰입해서, 하늘의 토대를 내가 깊이깊이 많이많이 만끽하고 느끼고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감할수록 세상에 대해 바라는 것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의 삶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을 위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극상의 호사스러움의 섬김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삶의 출발점과 토대로 주어진 십자가로부터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이 기반을 역행함으로 허물어뜨리는 고라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너무 호사스러워서 어색하고 수줍고 겸연쩍고 황송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 따라감으로 아들 되고 딸 되어서, 그 십자가와 하늘까지의 공간을 내 토대로 삼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